

2019 회계연도

감 사 결 과 보 고



전라남도체육회

<http://www.jnsports.or.kr/>

2019 회계연도 감사 결과 보고

□ 감사 개요

○ 추진 근거

- ▶ 전라남도체육회 규약 제49조(회계감사 등)
- ▶ 시·군체육회 규정 제48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 ▶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47조의 2(본회의 감사·징계 등)

○ 기간 및 장소

- ▶ 2020. 2. 13.(목) ~ 2. 14.(금), 2일간 / 전라남도체육회 회의실

○ 대 상

- ▶ 전라남도체육회
- ▶ 시·군체육회 (1개단체) : 영광군체육회
- ▶ 회원종목단체(13개단체) :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그라운드골프, 근대5종, 낚시,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 감 사 반

- ▶ 박종남 전남볼링협회장
- ▶ 양정훈 회계사

○ 감사 내용

- ▶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체육진흥 사업 전반

□ 2019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원)

회 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잔 액
계		26,049,192,894	22,351,781,165	3,697,411,729
일반회계		20,832,614,358	20,425,565,596	407,048,762
특별회계		4,206,814,014	1,055,551,617	3,151,262,397
	퇴직적립금	1,371,531,214	0	1,371,531,214
	체육시설관리운영	760,289,797	760,216,837	72,960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1,776,367,663	29,200,000	1,747,167,663
	전남스포츠과학센터운영	298,625,340	266,134,780	32,490,560
명시이월금		97,027,108	64,460,287	32,566,82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912,737,414	806,203,665	106,533,749

□ 감사 결과

○ 전라남도체육회 규약 제49조(회계감사 등) 규정에 의거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체육진흥 사업 전반을 감사한 결과,

1. 자산내역 중 예금은 광주은행 전남도청 출장소 및 농협은행 전남도청 출장소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기타 실물 자산은 제증빙 자료를 조사하여 확인하고,
2. 업무 실적 등은 제반사실 기록에 기초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 감사 결과, 재무 상태와 업무 실적에 대하여 규약 및 제규정에 따라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총 평

□ 2019년 전라남도체육회는,

- 전남체육의 중심체로서,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행복시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전남체육 경쟁력강화, 스포츠참여 환경조성, 스포츠복지향상, 체육행정 선진화 4대 중점과제 추진에 따른 체육진흥 육성을 위하여,
- 전남체육인재 양성의 큰 힘이 되고 있는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확대 조성 및 선수 연계육성을 위한 실업팀 창단에 경주한 결과 전남도청 여자 스쿼시, 남자 우수, 함평군청 레슬링, 나주시청 육상, 동신대학교 세팍타크로 총 5개팀 창단 등 전남체육 진흥 기반 토대 마련에 힘썼으며,
- 학교·생활·엘리트체육 연계육성을 통한 스포츠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광양 등 12개의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하며, 생활체육 복지혜택 균등화와 참여기회 부여로 체육인 모두의 스포츠복지향상 등 체육행정의 내실화에 기여하였음.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바이애슬론과 화순초 스키선수단의 활약으로 지난해보다 향상된 성적을 거두며 4년연속 고른 경기력을 이어갔고,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역도 조민재(전남체육중)와 양궁 조한이(순천 성남초) 선수의 대회 3관왕 등 꿈나무들의 활약과 함께 전국체전 성적향상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 전국체전에서도 당초목표인 10위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궁도와 댄스 스포츠의 종합 1위, 자전거 장주애(전남대교)의 대회신기록, 역도 신록(고흥)·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의 다관왕, 자전거 김민오(강진군청)·우수 윤웅진(전남도청)·볼링 최복음(광양시청)의 대회연패등의 기록들이 돋보였고, 양궁 최미선, 유도 박다솔, 펜싱 전수인·김정미 선수 등 제30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전남의 위상을 드높여 전남체육 경쟁력 강화에 경주하였음.
- 또한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토너먼트 또는 리그전에서 탈락한 팀에게 패자부활전등을 마련해 조기 귀가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육상 등 34개 종목에 1,200여명의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세대가 어우러지는 장에 함께 했다.

- 또한 전남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을 통해 참가자 모두가 협동심을 기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여하는 전남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여 22개 종목에서 평소 배우고 익힌 기량을 선보임으로써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에도 일조하였음.

□ 2020년 전라남도체육회는,

-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뤄 선출한, 제37대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출범하는 첫해인 만큼 회원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 등 체육인 모두가 역량 결집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 새로운 체육행정 수요에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조직변화로 재정비된 사무처에서는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제시한 5개분야 30개 주요 추진과제의 실현과 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정력 및 자생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며,
-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전라남도와 효율적인 업무교류 통해 시·군별 경기장 배정, 시설확충 및 개·보수 추진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 준비도 차질없이 해야 할것임.

□ 이번 자체감사를 통해 체육회 운영 상황을 살펴본 바,

-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사례가 지적되어 앞으로 체육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요청됨에 따라,
- 사무처직원들의 업무수행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소관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연찬과 교육참여 등을 확대해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회원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의 회계업무처리 미흡 등은 전남체육회의 경쟁력강화 및 행정업무 선진화를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개선을 요하는 사항

① 전라남도체육회 홈페이지 개선

- 전남도민에게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홈페이지를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 특히, 경기결과, 보도자료, 월별 대회 일정, 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메뉴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별 업무협조를 통해 즉시 수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하고, 홈페이지 메뉴얼 및 팝업창, 게재 사항 등은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디자인 리뉴얼이 필요함.

② 전라남도 위·수탁 종합체육시설물 효율적 관리 운영 개선 방안 검토

- 전라남도체육회는 전라남도공유재산인 국제사격장등 4개소의 종합체육시설을 전라남도로부터 위·수탁받아, 시설별 실질적 사용주체인 종목단체와의 사용협약에 의거 종목단체가 입주하여 직·간접 관리하며, 전남체육회 소속 직원들이 시설팀으로 파견되어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전남국제사격장은 수익사업을 위한 동호인 이용 및 도대표 선수 훈련과 대회유치 등으로 사대별 안전요원 의무배치 등 관계법규에 의거 시설 이용객 실적과 무관하게 모든 요일을 개장하고, 사대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함으로써, 수익금이나 시설관리운영비보다 인건비 부담 가중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법령에 반하고 있으며,
- 국제화된 사격장과 노후된 체육시설,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된 전남체육회관의 관리시 상황대처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로 상시 시설관리 위험에 노출되어 시설물의 종합관리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 전라남도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관리 전문인력 채용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위험에 적극적 대처와 「전라남도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사격장의 정기휴장시스템 도입, 분산된 시설관리인력의 재배치 등 효율적 시설관리방안을 마련하고,
- 국제사격장의 운영수익 개선을 위한 사격장 인지도와 사격장 활성화 프로그램등의 기획을 위한 마케팅 전략등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③ 문서 관리 철저

- 전남체육회 「사무처처무규정」 제114조에 따라 모든 사무를 문서에 의해 처리하고 있고,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전남체육회는 문서를 생산, 접수, 보관할 때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외부 공개가능 여부와 함께 내부보안 설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서정보를 설정하여 외부공개가 불필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그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개인정보등이 포함된 문서를 대부분 공개문서로 보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문서를 생산, 접수, 보관시 해당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공개 및 보안 설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서정보를 설정하여 관리하기 바람.

④ 전문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으로 역량 강화

-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전문체육지도자에게 근무연수 및 실적 등을 감안하지 않는 동일 지원금 체계로 인하여 우수지도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내재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선수 발굴 및 육성에 절대 필요한 지도 역량의 한계성이 엿보임에 따라,
- 이들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체전 및 전국규모대회 성적 등이 총망라된 지도자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도입하는 등 근무연수 및 실적에 합당한 차등 지원체계(인센티브 등)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더불어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전문체육지도자의 경우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사기저하 등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들의 안정적 생활 유지 체계를 보장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인 선수 발굴 육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계적 처우 개선이 요구됨.

⑤ 경기력향상을 위한 전략종목 운영 개선

- 우리도 경기력향상 및 연계육성 활성화를 통한 엘리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전남체육회에서 자체 운영 중인 전략종목은 2016년 시작하여 매년 5~6종목의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행정기관직장팀 창단(도청-우슈, 스퀘시, 순천시청-유도)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으나,

- 정식팀 운영이 아닌 우수선수육성비 지원대상자로 구성되어 전문체육 지도자 1명 배정 및 운영비(대회출전, 장비비)지원에 그쳐 우수선수 영입 및 운영관리 등 팀 운영에 대한 한계성이 있는바 경쟁력 있는 팀 창단을 위한 지원(선수단 임용, 전용훈련장, 합숙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활성화 노력

- 현재 전남의 공공스포츠클럽은 2019년 구례 노고단공공스포츠클럽의 설립으로 총 12개의 클럽으로 전국 최다 클럽을 보유하는 등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했으나, 지역별 클럽의 현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원기간 3년 이내에 목표 회원수 달성하기가 턱없이 모자라는 곳이 대다수임.

《목표 기준》

유형	정회원(법인설립허가일 기준)		
	1년 후	2년 후	3년 후
대도시형	300명	500명	700명
중소도시형	200명	350명	500명

《2019년 기준 현황》

클럽명	설립년도	정회원수	클럽명	설립년도	정회원수
세한클럽	2015	396	영광클럽	2018	222
곡성클럽	2016	75	진도클럽	2018	255
나주클럽	2017	273	강진클럽	2018	454
순천클럽	2017	648	해남클럽	2018	144
광양클럽	2017	300	보성클럽	2018	72
여수클럽	2017	174	구례클럽	2019	47

- 특히, 각 지역 공공스포츠클럽에서는 회원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현실은 시군체육회 기존사업의 회원이 대다수임은 물론 정해진 인구수 내에서 회원 증대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시군체육회와의 미묘한 관계에 따른 사업 확장에 적잖은 애로점이 존재하는 게 현실임.
- 따라서 사업의 지속 가능하고 자립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체육회가 시·군, 시·군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7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방법 개선 노력

- 전라남도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제6조 ①항에 근거하여, 전라남도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선발)하여 시·군체육회에 배치, 시·군의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하게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지도자는 시·군체육회장의 요구를 받아 시·도체육회장이 채용(선발)하고, 계약은 시군체육회장이 한다. 다만, 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시군체육회로 위임할 수 있다.
(22개 시·군 257명 : 일반 123명, 어르신 134명)

-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결원 충원은 전남체육회 주관으로 채용(수기 개최 불가)되어, 시·군에서 필요적기에 인력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장 지도 활동 중단, 행정력 지연등의 문제점 발생과 업무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시·군체육회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는바,
- 타 시·도체육회 사례 및 시·군체육회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시·도체육회 직접 채용 : 8개시·도, 시·군·구 위임 채용 : 9개시·도

8 전남스포츠과학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사업을 우리도로 유치,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운영으로 과학적 훈련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대표 선수들의 체력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한 선수 개개인의 체계적인 훈련 컨설팅으로 경기력 향상에 일조하고 있으나,
- 우리도의 전국체전 한자리 순위 진입을 위하여, 스포츠과학의 체계적 지원으로 잠재적 지역 우수선수 발굴 및 기량 증대로 선수층 저변 확대와 더불어,
- 특별관리 우수선수들의 체력측정을 통한 DB를 구축하여 맞춤형 훈련 방법 멘토링과 밀착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으로 전국체전 한자리수 목표 진입하는데 선수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바람.
- 또한 민선체육회장의 공약사항 전문체육분야 과제중 하나인 「스포츠과학 컨디셔닝센터」 설립을 통해 도대표 선수와 유망주 학생선수의 발굴 및 육성·훈련, 재활·치료를 위한 거점 마련과 청년체육 인재 일자리 창출등 전남스포츠과학센터가 전남체육 선진화 기반 마련에 앞장설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9] 회원종목단체 행정지도 감독 강화

- 금번 행정 지도 결과 일부 종목단체 실무 담당자의 행정경험과 업무연찬 기회 부족으로 인한 미숙한 업무처리와 회계처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의식이 부족하고,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만으로 사업비의 배정 및 관리에 따른 예산집행기준에 맞는 회계처리 절차 및 적정성 여부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 회계업무의 표준화, 전표처리방법 및 작성요령, 주의사항 등 통일화된 회계처리 기준 및 관련지침을 회원단체에 시달하고, 회계집행의 실무 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연찬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상기와 같이 감사 결과를 보고함.

2020. 2. 14.

전라남도체육회

감 사

박

홍



감 사

양

정

훈

